경기미협 회원 초대전

포천반월아트홀에서 270여점 전시회 가져

경기미협 제59회 회원 초대전이 지난 5일과 6일 포천반월아트홀에서 개최됐다.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경기미술협회 제59회 회원 초대전이 지난 5일과 6일 이틀간 포천반월아트홀에서 개최됐다.

이번 전시회는 동양화와 서양화, 서예 등 경기미협 회원 작품 270여점이 전시되어 포천미술 애호가들의 큰 호응을 받았다.

한편 지난 5일 포천반월아트홀에서 개최된 기념식에 황재성 (사)한국미술협회 경기도지회장을 비롯한 경기미협소속 회원 150여명과 박윤국 포천시장, 황일행 포천미협 지부장, 이만구 문화원장, 김진동 예총포천지부장 등 문화예술계 인사들이 참석했다.

황재성 경기미협 지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인류가 존재하는 동안 예술은 한 시대와 국가를 투영하는 거울이며 독창적인 예술혼은 문화발전의 원동력으로 자유로운 행동과 사고에서 위대한 예술이 탄생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감명과 또다른 세계로 향하는 길잡이 역할을 해 왔다"면서 "어려운 환경속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회원들에게 감사드리며, 이번 전시를 준비해 노고를 아끼지 않은 포천미협 관계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하승완 기자 forme65@paran.com

제3회 정원서회 서예전 개최

솔모루 문화관 11월1일까지 전시회 가져

제3회 정원서회 서예전이 지난달 29일부터 11월1일까지 4일간 소흘읍 솔모루 문화관에서 개최됐다.

지난달 29일 기념식에 이만구 포천문화원장을 비롯한 김진동 예총포천지부장, 황행일 미협포천지부장, 정원서회 회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3회째를 맞는 이번 전시회에는 일반 회원 17명의 작품 29점과 학생 8명의 8점 등을 전시했다. 전시된 작품은 판본체, 궁체, 흘림체의 한글 서예작품과, 전서체, 예서체, 해서체, 행서체, 초서체 등 한문 작품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장동원 정원서예학원장은 "정원서회 작품전시회는 일반인들이 서예에 관심을 갖도록 유도해 많은 사람들이 서예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했다"면서 "학생들이 서예를 하면 마음이 차분해져 집중력과 성적이 향상되는 효과를 가져온다"고 말했다.

하승완 기자 forme65@paran.com

제3회 정원서회 서예전이 지난달 29일부터 11월1일까지 4일간 소흘읍 솔모루 문화관에서 개최됐다.

사각의 앵글 속에 담은 세상

제6회 포천사진동우회 정기회원전

포천사진동우회가 지난달 28일부터 지난3일까지 7일간 반월아트홀 전시장에서 개최한 제6회 포천사진동우회 정기회원전 첫날 참석 내빈들이 테이프 커팅으로 전시회를 축하했다.

포천사진동우회(회장 이규춘)은 지난달 28일부터 지난3일까지 7일간 반월아트홀 전시장에서 제6회 포천사진동우회 정기회원전을 개최했다.

포천사진동우회 회원들의 작품 전시를 통해 사진예술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마련된 이번 정기회원전은 포천시, 포천시의회, 경기문화재단, 포천문화원, 예총포천시지부가 후원하고 포천사진 동우회가 주최했다.

이번 전시회의 기념식은 지난달 28일 반월아트홀 전시장에서 개최됐으며, 전시회는 회원들의 창작 작품 30여점이 전시됐다.

기념식에서 이규춘 회장은 "그동안 회원들은 각기 다른 분야의 직장과 생활의 틈바구니 속에서 작품활동에 심혈을 기울였다"며 "앞으로 포천사진동우회는 더욱 겸손하고 진지한 자세로 작품활동에 정진해 지역사진인의 구심체가 되어 사진예술 발전에 초석이 되는 견인차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승완 기자 forme65@paran.com

영평팔경가 창극공연 설명회

오는 12월15일 반월아트홀 대극장서 공연

(사)한국경기소리보존회 포천시지부(지부장 박영실)는 지난 7일 오후6시 포천동 유림회관에서 최종규 전 포천문화원장과 이만구 포천문화원장, 김진동 포천예총 회장 등 지역 문화예술계 인사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포천별곡 영평팔경가 창극공연 설명회를 개최했다.

포천별곡 영평팔경가 창극공연은 조선 선조 때의 명재상 박 순 선생의 시 영평팔경(화적연, 금수정, 창옥병, 낙귀정, 백로주, 청학동, 선유담, 와룡담)을 가사로 하여 그 절경을 경기민요적으로 해석하여 곡을 창작하고 창극적 요소를 가미하여 새로운 양식의 공연예술을 선보이기 위함이다.

또 포천지역의 명승유적지인 영평팔경을 소재로 한 창극공연은 포천의 영평팔경에 대한 전 국민의 인지도를 높여 이를 전국적인 명승지로 널리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연은 오는 12월15일 오후4시 포천반월아트홀 대극장 무대에서 실시할 계획이며 이번 공연은 포천시가 2천만원, 경기문화재단에서 900만원을 지원하며 자체적으로 1천445만원등 모두 4천3백35만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박영실 지부장은 이번 공연에 대해 "포천별곡 영평팔경가는 포천의 대표적 경기민요로서 지역주민들에게 문화적 자부심을 갖도록 할 것이며 우리 전통문화공연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갖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설명회에서는 한국경기소리보존회 포천시지부 회원들이 직접 창작한 곡에 맞춰 영평팔경가 한 대목을 선보이기도 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사)한국경기소리보존회 포천시지부는 지난 7일 오후6시 포천동 유림회관에서 최종규 전 포천문화원장과 이만구 포천문화원장, 김진동 포천예총 회장 등 지역 문화예술계 인사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포천별곡 영평팔경가 창극공연 설명회를 개최했다.

韓國의 선비정신 · 14

의리와 명분으로 나라 자존 지킨 원칙주의자

청음 김상헌(淸陰 金尙憲) 1570년(선조3) ~1652년(효종3)

리효종
포천한시사 대표

자는 叔度(숙도), 호는 淸陰(청음), 석실산인(石室山人)

한사람의 생애에서 전쟁이 미치는 영향은 지대하다. 청음 김상헌은 일생동안 두 번이나 전쟁을 겪었다. 그의 나이 스물세살때부터 7년간이나 계속된 임진왜란과 예순일곱살때인 1636년 발발한 병자호란이 그것이다.

이 두차례의 전쟁은 동아시아의 질서를 바꾸어 놓은 세계대전이었다.

병자호란은 특히 김상헌이 대신의 반열에 올라 정국의 주도자로서 치러야 했던 전쟁인 만큼 힘겨우면서도 그의 능력이나 개성이 남김없이 발휘되는 계기가 되었다.

1623년 일어난 인조반정은 율곡학파를 모집단으로 하는 서인이 주도하고 퇴계학파의 남인이 동의하여 일으킨 정변이었다. 광해군 시대의 북인정권은 시세에 따라 향배(向背)를 달리하고 관망하는 실리의 외교를 폈다.

이에 비하여 반정 이후 신정부는 순정 성리학도 답게 명나라가 임진왜란때 도와준 재조지은(再造之恩 : 거의 멸망한 것을 구원하여 도와 준 은혜)을 들어 명에 의리를 지키고 문화능력이 결여된 무법자로 국제질서를 교란하는 청나라에 반대의 기치를 분명히 하였다.

그는 반정에 직접 가담하지 않고 초야에서 학문을 하던 사림(士林)으로 공신세력의 공서파(功西派)와 노선을 분립하여 집권당 안의 비판세력인 청서파(淸西派)의 영수가 되었다. 명분사회이던 조선은 명분이 강한 사림만이 살아 남을 수 있었으므로 결국 공서파는 도태되고 청서파가 정국을 주도하게 되었다.

1636년 청은 기존의 형제의 의리가 아니라 군신의 의리를 강요하며 병자호란을 일으켰다. 명나라를 칠 목적으로 배후에서 동서진영을 구축하고 있던 조선을 우선 제압하려는 것이었다.

10여년전 정묘호란때부터 지식인 사회의 여론은 약탈을 일삼는 여진족 오랑캐와 화친할 수 없다는 원칙론인 척화론(斥和論)으로 결집되어 있었다.

그러나 강화도가 함락되어 그곳으로 피난하였던 대군, 비빈, 원손이 청에 잡여 가자 남한산성에 있던 인조와 대신들 사이에서는 화친을 주장하는 현실론인 주화론(主和論)이 비등했다. 결국 국체의 상징인 왕이 남한산성에서 삼전도(三田渡)로 내려와 청 태종에게 항복하는 치욕을 당하였고, 홍익한(洪翼漢), 윤집(尹集), 오달제(吳達濟)등 젊은 지사들이 속죄양이 되어 청으로 잡혀 갔다.

이때 예순일곱의 김상헌은 대표적인 척화대신으로 척화론의 중심인물이었다. 더구나 외교업무의 총책인 예조판서를 맡고 있었으므로 업무수행에 대한 직책감까지 겹쳐 그 누구보다도 치욕감이 심했을 것이다.

그는 전후 상소를 통해 청나라와의 대결은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시작임을 지적하였다. 청나라를 적국으로 설정하고 있는 한 적극적으로 전쟁에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그 정신력은 와신상담(臥薪嘗膽)에서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조선후기 사회에서 국가대의로 자리잡은 북벌론(北伐論)의 시초가 되었다. 평화적인 국제질서를 무력으로 와해시킨 청나라를 토벌하여 복수설치(復讐雪恥)하겠다는 북벌론은 상처받은 국민적 자부심의 회복운동으로 제기되어 조선후기 사회를 재건하는 구심점이 되었다.

그는 은퇴후에도 명나라를 칠테니 조선의 군대를 파병하라는 청의 요구에 반대하는 등 반청의 자세를 분명히 했다.

김상헌의 이러한 입장과 역할은 청나라에 알려져 1640년엔 청의 강력한 요구로 심양으로 끌려가게 되었다. 의주에 도착, 적장이 심문하며 여러 가지로 위협하고 회유하였지만 조금도 소신을 굽히지 않았고 심양에 가서도 여전했다. 그??나라 관원들도 그의 충절에 감탄하여 '김상헌'은 감히 이름을 부를 수 없다고 하며 조선 선비의 기개에 존경심을 보였다.

그는 1645년 일흔 여섯살에 심양에서 돌아와 좌의정에 제수되었다. 그리고 10여년의 인질생활을 하였던 효종이 1649년 즉위하자 북벌대의가 국가의 지도이념이 되어 이 이념의 상징적 인물로 떠 받들어 진 그에게 대로(大老)라는 존칭이 내려졌다. 척화론의 주도자로 활약하면서 죽음도 불사하는 의지로 국론을 이끌었고 그의 형 김상용(金尙容)도 강화에서 순절하므로써 이들 형제는 조선후기 국가사업으로 계속된 애국지사 현창사업을 통해 대표적인 충신열사로 높이 평가받았다.

그는 스스로 자신이 추구하는 바를 1백년후에나 사람들이 알아줄 것이라고 했다. 전쟁중에 살아남고 먹고 사는 것이 시급한 현실에서 국민의 정신력을 키우고 자존심을 세우려는 김상헌의 이상주의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비웃음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살아 생전에 왕으로부터 그 노선을 인정받고 응분의 예우를 받았다. 이는 그러한 가치에 동의하는 국민정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김상헌은 현실론이 설득력을 갖고 있던 전란의 와중에서도 1백년후를 내다보며 조선사회의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의리와 명분이라는 푯대를 높이 세운 참다운 조선의 선비였다.

〈다음호에 계속〉

포천종고 관악부 제4회 정기연주

포천종합고등학교(교장 이광호) 관악부(지도교사 김형신)는 포천시민과 관내 학생들을 위해 오는 30일 오후 7시부터 포천반월아트홀 대극장에서 제4회 정기연주회를 개최한다.

포천종합고등학교 관악부는 이번 정기연주에서 Grand March, Fantaisie-Saxophone협연(3학년 심웅), Dakota, A song for lea, Rudolph, El Cumbanchero, El Camino Real 등 6곡을 연주하게 된다.

1999년 4월에 재창단 된 포천종합고등학교 관악부는 방과후 특기적성교육으로 김형신 음악교사의 지도아래 현재 47명의 단원이 활동하고 있다.

지혁배 기자 94spice@hanmail.net

포천종합고등학교 관악부는 포천시민과 관내 학생들을 위해 오는 30일 오후 7시부터 포천반월아트홀 대극장에서 제4회 정기연주회를 개최한다.

수필가 김창종의 〈포천 이야기〉 (148)

'비(飛)' 자 이야기

봉래 양사언(蓬萊 楊士彦)은 안평대군, 김구, 한석봉과 함께 조선조 4대 명필로 손꼽힌다. 특히, 양사언은 큰 글자와 초서체로 유명하다. 님의 글씨는 대부분 암각문(돌에 새겨진 글씨)으로 전하는데 현재 님의 13대 종손인 양재웅님이 소장하고 있는 양사언님의 '비(飛)'자 족자는 이 점에 있어 그 사료적 가치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는데 그 보관상태가 매우 양호하다.(글자크기; 88cm 123cm, 족자크기;98cm 142cm)

이수광이 쓴 '지봉유설'에 있는 이야기를 살펴보자

"공은 큰 글자를 잘 썼다. 일찍이 양양 별장에 있을 때, 날 비(飛) 한자를 써서 그 아들에게 부탁하기를 '나의 정력이 모두 이 글자에 있으니 아껴 간직하라.' 이에 밀실에 간직하였던 바, 어느 날 바다 위로부터 바람이 불어와 그 종이를 날려서 공중으로 올라간 후에 그 소재를 알 길이 없었는데, 뒤에 그 날자를 살펴보니 공이 세상을 버리던 날이었다"

원래 '비(飛)'자 족자는 두개인데 하나는 양사언 님이 하늘로 날아가실 때 함께 날아가고 또 하나는 아들을 통해 가보로 지금껏 전래(傳來)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유근(柳根:1549~1627)의 '비자기(飛字記)'를 살펴보자.

1546년(명종19년) 고성군에서 재임하고 있을 때 쓴 글씨이다. 본래는 '비래정(飛來亭)'의 현액을 쓰기 위하여 썼던 것이다.

"고래수엽으로 '비(飛)'자를 먼저 써 놓고 '래정(來亭)'을 수차례 써 보았지만 마음에 들지 않아 포기하였으며 '비(飛)'자만 족자로 만들어 걸어두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어느날 그 족자가 바람에 날려 사라졌고, 그 날이 바로 세상을 마친 날이었다."

이 부분의 이야기는 양씨 문중에 전래 설화와 일치한다.

이 족자와 양사언의 죽음이 연관되어 전한다는 것이 매우 흥미롭다. 더욱이 그의 시 작품중에서 사용된 시어(詩語) 중에서 날 비(飛) 자가 유난히 눈에 띄게 많다는 사실만도 우연만은 아닐 듯싶다. 그의 글자가 "'신기(神奇)'와 '정채(精彩)'가 뛰어나다"는 모든 사람들의 평은 이 같은 자료를 두고 한 말이다.(중간 부분 생략)

선비가 추구하는 이상향(理想鄕)은 진경산수(眞景山水)이다. 그리고 죽어서는 하늘로 비상천(非上天)하는 것 즉, 시심을 남기지 않고 하늘의 신선(神仙)이 되어 선계(仙界)로 날아가는 것이 최고의 희구하는 바였으며 선교(仙敎)의 이상(理想)이기도 하다.

바로 내 고향 포천출신의 선풍도골(仙風道骨) 신선의 풍모와 도인의 모습을 지녔던 봉래 양사언 선생께서는 이 세상 사실 때에 금강산과 내 고향 왕방, 수원, 청성, 죽엽, 운악산을 지극히 사랑하며 노래하셨던 도인이셨으며, 죽을 때에는 자기의 혼백과 정기가 담긴 비자를 타고 하늘나라로 신선되어 날아가셨음을 알 수 있어 재미있다.

필자연락처 02-932-2434

초대 漢詩

追慕漢陰李先生 天年賢邊全

(추모한음이선생) (천년현변전)

漢陰智勇稟於天(한음지용품어천)
한음께서는 지용이 뛰어나시니

文筆奇才歷百年(문필기재역백년)
문필과 재주가 오래토록 전해지고 있네

護國忠貞局秀(호국충정국수)
재주와 국량이 뛰어나시어 나라위해 충정을 다하셨고

爲民政策性情賢(위민정책성정현)
타고난 성정이 어질어 선정을 펴셨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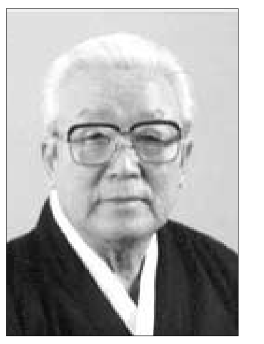
陪從君主龍灣外(배종군주용만외)
군주를 배종하여 의주까지 갔으며

請援明軍槿域邊(청원명군근역변)
명군을 청원하여 나라를 구하셨네

愛族精神千古監(애족정신천고귀)
애족정신은 千古에 귀감이 되고

壬辰亂勝瑞光全(임진란승서광전)
임진왜란을 승리하니 서광이 비쳤도다.

※龍灣(용만)은 義州(의주)의 옛 지명



嘉隱 최종규
포천명유회장

초대 詩

남이섬의 가을노래

시끌 시끌
귀뚜리가 몰려온다,
호수위 조각안으로 가득히 몰려든다.
검스런 조각은 빨리듯 물살을 헤집는다.

웅성 웅성
귀뚜리떼는 웅성거리며 날아 흩어진다
잔디위로 낙엽위로 제 멋대로 날아 다닌다,
호수로 날아들어 알록달록 조각에 실려
물살도 친다.

온기어린 잔디위에서 낙엽진 그늘 아래서
나름대로 떼를 지어 귀뚤귀뚤 가을을
노래하니
잣나무위의 청솔모가 춤을 추고
단풍나무 위의 까치가 박자를 친다.

옹기종기 모여 있는 귀뚜리떼는
샛노란 은행나뭇잎 동굴속에서
추억을 나누고 과거를 만든다.
허리잘린 서산에 붉은해가 걸려있는
이시간에...

이 홍 우
솔모루문학회 부회장